

왜 같은 분기에 216.1%와 202.6%가 함께 나오나

K-ICS 경과조치 적용 전·후를 나란히 봐야 보험사의 실제 완충력을 읽을 수 있다

금융감독원의 2026년 1분기 K-ICS 발표와 금융위원회의 제도 도입자료,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을 대조해 두 비율의 의미와 공개되지 않은 회사별 차이를 나눴습니다.

발행	2026.08.22	연번	2026_50
읽는 시간	7분	작성	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

연구소의 판단

연구소는 216.1%와 202.6% 중 하나를 진짜 비율, 다른 하나를 장식으로 보지 않는다. 적용 후 비율은 현행 감독상 인정되는 값을, 적용 전 비율은 경과조치가 자본여력에 미치는 크기를 보여 준다. 회사별 위험을 읽으려면 두 숫자와 경과조치의 종류·종료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.

CONTENTS

이 글의 순서

- 01 연구소의 판단
- 02 확정된 사실
- 03 왜 이런 구조인가
-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
-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
- 06 지금 할 일
- 07 갈림길
- 08 함께 읽을 것
- 09 근거와 검증

2026년 1분기 보험회사 K-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216.1%, 적용 전 202.6%였습니다. 13.5%포인트 차이는 규제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회사별 단계적 적용 효과입니다.

01 · 확정된 사실

확정된 사실

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19일 1분기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을 경과조치 적용 전·후로 함께 발표했습니다.

경과조치 적용 후	216.1%	전분기 212.3%
경과조치 적용 전	202.6%	전분기 197.6%
두 비율의 차이	13.5%p	216.1%-202.6%
생명보험	207.7%	적용 후
손해보험	229.7%	적용 후
자본 변동	+26.9조원 · +10.1조원	가용자본 · 요구자본

K-ICS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. 자산과 부채를 경제가치로 평가하고 금리·시장·보험·신용·운영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합니다.

경과조치는 새 기준으로의 충격을 나눠 반영하거나 일부 자본항목의 인정·감독조치 적용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장치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최장 10년의 단계적 적용과 회사별 선택·공시를 제도 도입 때 밝혔습니다.

02 · 왜 이런 구조인가

왜 이런 구조인가

2023년 도입된 K-ICS는 종전 RBC보다 자산·부채의 시장가치 변화와 장기 보험부채 위험을 더 폭넓게 반영합니다. 기준이 한 번에 바뀌면 장기계약을 보유한 보험사의 비율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.

적용 후 216.1%는 회사가 승인받아 사용하는 경과조치를 포함한 감독상 비율입니다. 적용 전 202.6%는 그 조치를 걷어낸 비교값입니다. 둘의 차이 13.5%포인트는 업계 전체 수준이며 회사별 차이는 더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.

비율 상승만으로 위험이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. 1분기에는 가용자본이 26.9조원 늘었지만 요구자본도 10.1조원 늘었습니다. 금리·주가·환율과 보험부채 변화가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작용합니다.

감독규정은 지급여력비율 구간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연결합니다. 단일 분기 수치보다 적용 전·후의 추세, 자본의 질, 경과조치 종료 뒤 비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

03 ·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

누가 얼마나 물리는가

가용자본 216.1, 요구자본 100이라고 단순화하면 경과조치 적용 전 가용여력에 해당하는 값은 202.6 수준입니다. 차이가 13.5는 당장 사라지는 손실이 아니라 경과조치가 현재 비율에 더한 업계 평균 효과를 보여 주는 비교값입니다.

보험계약자에게 K-ICS 비율 하락이 곧 보험금 미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자본확충, 배당·신종자본증권, 상품 판매와 정리정책에 영향을 주므로 회사별 공시의 두 비율과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적용 후	216.1%	감독상 비율
적용 전	202.6%	경과조치 제거 비교
차이	13.5%p	216.1-202.6

04 ·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

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

01 · 회사별 의존도

업계 평균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어떤 경과조치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. 회사별 경영공시를 봐야 합니다.

02 · 종료 뒤 비율

각 회사의 적용 종류와 기간이 달라 경과조치가 줄어드는 시점의 비율을 한 숫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.

03 · 자본의 질

가용자본 증가분에 보통주·이익잉여금과 신종자본증권 등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요약 발표에 없습니다.

04 · 시장충격 민감도

금리·주가·환율 충격이 회사별 적용 전·후 비율에 미칠 크기는 스트레스 공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05 · 지금 할 일

지금 할 일

국민	- 가입 보험사의 경영공시에서 K-ICS 적용 전·후 비율, 전분기·전년동기 추세와 경과조치 종류를 함께 봅니다. - 비율 하나만으로 해지하지 말고 보험금 지급과 계약이전 등 보호절차, 해지손실을 먼저 확인합니다.
대상회사	- 적용 전·후 비율과 차이를 같은 그래프에 표시하고 경과조치별 효과·종료연도를 공개합니다. - 자본확충이 보통주·이익잉여금인지 자본성증권인지 구분하고 금리충격 뒤 예상비율을 설명합니다.
당국	- 회사별 경과조치 종류·효과·잔여기간을 비교 가능한 표로 집계합니다. - 적용 전 비율과 경과조치 소멸 경로를 적기시정조치·스트레스 결과와 함께 공개합니다.

칼럼길

경과조치가 끝나기 전에 자본을 스스로 채우는가

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· 회사별 경과조치 소멸 속도와 그 사이 이익유보·유상증자·자본성증권 조달 계획은 동일 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

A 자생적 자본이 빈자리를 채움 이익유보와 보통주 자본이 늘어 적용 전 비율도 안정되면 경과조치는 충격을 나눈 통로로 끝납니다.	B 경과조치 의존이 계속됨 종료가 가까워져도 적용 전 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본조달·상품구조조정과 감독조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--	--

어디를 보면 아는가 · 분기별 회사 경영공시에서 적용 전·후 차이, 경과조치 잔여기간, 자본구성 및 금리충격 시나리오를 확인합니다.

함께 읽을 것

4개의 연결 지식

[금융사건 K-ICS 경과조치](#) ↗

[금융사건 MG손해보험 부실과 정리](#) ↗

[제도와 규칙 예금자보호제도](#) ↗

[금융상품 종신보험](#) ↗

근거와 검증

확인한 사실·숫자 6건

01	1차 · 2026년 1분기 K-ICS 적용 후 216.1%, 적용 전 202.6%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공식 발표 원문 열기 ↗
02	1차 · 전분기 적용 후 212.3%, 적용 전 197.6% 금융감독원 2025년 말 지급여력비율 발표 원문 열기 ↗
03	1차 · 생명보험 207.7%, 손해보험 229.7%, 가용자본·요구자본 증감 금융감독원 2026년 1분기 공식 발표 원문 열기 ↗
04	1차 · 경제가치 기반 K-ICS와 최장 10년 경과조치, 적용 전·후 공시 금융위원회 K-ICS 도입방안 원문 열기 ↗
05	1차 · 지급여력비율과 적기시정조치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7-17조부터 제7-19조 원문 열기 ↗
06	파생 · 경과조치 적용 전·후 차이 13.5%포인트 $216.1\%-202.6\%=13.5\%p$

추적 예정	회사별 경영공시의 적용 전·후 격차, 경과조치 잔여기간과 자본구성 변화를 매 분기 확인합니다.
정정 이력	첨부 PDF의 미검증 감독규정 상태를 해소하고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을 확인했습니다. 경과조치를 단순한 적용시기 유예로만 표현하지 않고 단계적 반영·자본인정·감독조치 조정의 묶음으로 정교화했습니다. 사이트 공개 순서를 다시 대조해 연번을 제50호로 바로잡았습니다.
면책 고지	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특정 보험계약의 가입·해지나 보험회사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회사별 건전성은 최신 경영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.
작성	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